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역사성의 문제에 관하여

朴 明 珍

(서울대 新聞學科 助敎授)

목 차

- | | |
|--------------------|------------------------|
| 1. 서 론 | 4. Lasswell의 기능이론 |
| 2. 역사성의 제거와 주체의 구성 | 5. 이용과 충족의 이론과 현실도피적기능 |
| 3. 커뮤니케이션 모형 | 6. 결 론 |

1. 서 론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이른바 정통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방법과 그 업적에 대한 비판은 70년대 이후, 철학적 배경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경향의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어 오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주었다. 그 대표적 경향으로 문화주의적 연구, 구조주의적 연구, 정치경제학적 연구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은 자기 연구의 대상이나 시각과 방법을 서로 달리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고립된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제도, 혹은 지배적 문화와 가치체계등과의 상호 관련 하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정통적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적 성격을 갖는 연구 대상으로부터 역사성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사회학적 차원의 의미추구는 이 역사성의 복원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트 홀이 “비판적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한 정통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들은 비교적 널리 소개가 되었으며¹⁾ 석, 박사 등의 학위논문 주제로도 가끔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새로운 방법론의 습득이나, 그 접근방식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상, 사조들의 이해와 검토의 과정에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을 활용하 기존의 정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검토나, 구체적 사례의 분석은 상당히 빈약하다.

사례분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아마도, 기존이론들을 비판적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비추어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사례분석이 새로운 이론 정립을 위한 자료의 축적을 가능케 한다면 이 작업은 사례분석의 방향에 대한 암시를 줄 뿐더러 그 자료들을 모아 이론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 대표적인 소개로서는 이상희편,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한길사, 1983.

이 글에서는 정통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식화해 놓은 대표적 커뮤니케이션의 모형과, 정통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효과, 기능 이론 중 기본개념에 속하는 라스웰의 기능이론과 이용과 충족이론을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행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계열에 속하는 연구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는 역사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역사성의 제거와 주체의 구성

역사성의 제거란 역사적 성격을 갖는 대상의 재현(representation) 혹은 해석에 있어서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말하며 Roland Barthes, Louis Althusser 등 많은 마르크시즘 계열의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이데올로기 기능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역사화는 고도의 정치적 텍스트로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행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60~70년대의 기호학자들은 매스 미디어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밝혀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데올로기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이 탈역사화의 작용이 문화산물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내 주었다.

계급적 갈등 차원의 문제를 심리적 갈등의 차원으로 재현해 주는 픽션물들의 메카니즘에서부터,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기사들의 증거자료처럼 인식되어 온 신문사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의 인격화(Personalization)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은 무척 다채롭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역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해석을 담은 담화로써 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시각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이론이 그 대상을 탈역사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담화로써 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의 구성’ 문제는 후기 구조주의 발전에 중요한 활력소로서 작용한 개념으로, Althusser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다듬어졌다.

“주체의 구성” 개념은 실제 이데올로기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탈역사화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맞닿아 있어서, 특정 담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분석에 흔히 채용된다.

Althusser의 구조주의는 인간 주체와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정통 마르크시즘과 차이를 드러낸다. 정통 마르크시즘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간주된다. 또한 인간의 주체적 의도, 의지를 인정하며 그 결과로 구체화된 주체적 활동이 역사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경험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실체화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감각을 통해 파악하게 되는 행위로 본다.

Althusser에 있어서는 주체나 경험 모두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체란 의식적 자아(Conscious Self)로서, 선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습득과 함께 점차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본다.²⁾ Lacan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립된 Althusser의 주체이론에 의하면, 주체의 형성은, 인간이 자신과 타자, 자신과 주변환경, 자신과 자신의 표상 사이를 구분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이룬다.

라캉에 의하면, 주체의 형성은 언어습득이 시작되는 유아기에 시작된다고 보는데 언어란 바로 차이체계(système de différence)로서, 언어에 의해 비로소 자신과 사물들, 또한 사물들 사이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은 그 자체로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구분에 의해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다.³⁾

Althusser는 이데올로기를 재현의 체계(système de représentations)로서 정의하는데 재현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의 습득이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과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차별화의 습득이란 재현의 체계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 즉 이데올로기의 수용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주체의 형성을 차이체계에 눈뜬 상태로 보았을 때,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⁴⁾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큰 주체(Sujet)로서, 개개인들의 작은 주체들(Sujets)과 반사적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성된 주체는, 시공을 초월한 우주 보편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자율적 주체에 대한 믿음은 신화적이고, 이념적 실천행위가 된다.

앞서 얘기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검토는, 구조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탈역사화의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주체의 개념을 통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커뮤니케이션 모형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구조연구에 제기되는 제반적인 문제들, 예컨대, 구조가 작용하는 방식, 구성요소들,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등의 문제를 명료하게 밝혀 주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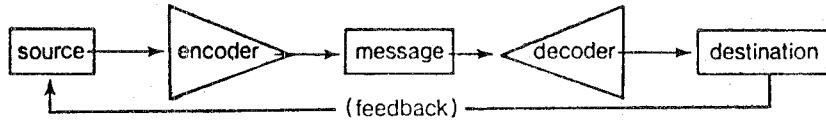
2) Louis Althusser, "Idéologie et appareils idéologiques d'Etat" in *Lenin et Philosophie*.

3) Jacques Lacan, *Les Ecrits* Vol. 1, pp. 8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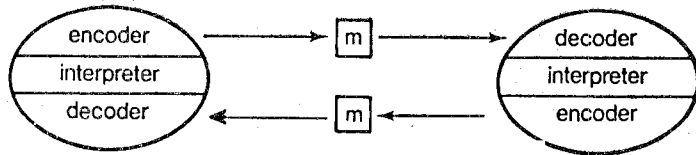
4) Althusser, *Lenin et Philosophie*, Maspero, 1970.

해 구축된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잘 알려진 네가지 모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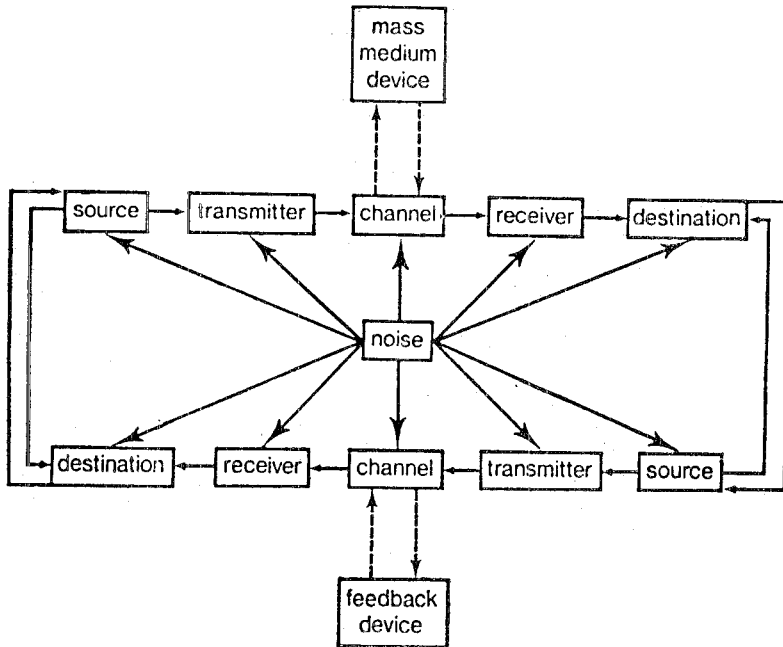
이 모형들은 고도로 일반화된 모형으로서, 시간, 공간성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틀로서 제시된다. 이 모형들은 Althusser가 경험주의적 추상화(abstraction empirique)라고 부른 지식의 생산 방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경험적 추상화란,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경험의 대상에 가하는 일종의 정제작업



(1) C. Shannon and W.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I.U. Press,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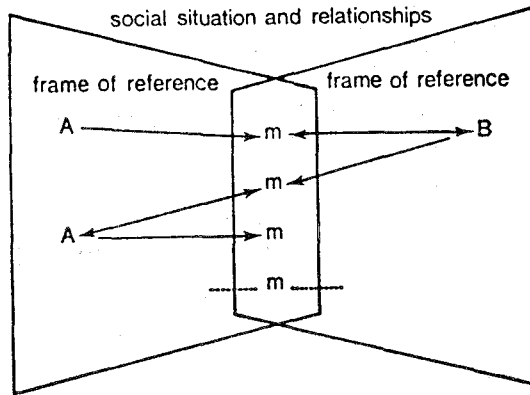


(2) C.E. Osgood, *Vocabulary for Talking about Communication*, Urbana: I.U. Press, S. d.



(3) M. De Fleur,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N.Y.: David Comp. Inc., 1970.

5) Louis Althusser, *Pour Marx*, Paris: Maspero, 1965.



(4) W. Schramm: "The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n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I.U. Press., 1972.

이다. 이런 경우 그 대상으로부터 역사적 성격을 갖는 "현상적 측면"을 제거해 버리고 모든 역사성을 초월하는 불변의 것인 "본질적 측면"만이 남겨진다. 따라서, 경험적 추상화 작업에 의해 구축된 이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은 현상적 측면인 커뮤니케이션적 사실은 문제화하지 않고 본질적 측면인 모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공통되는 불변적 요소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구성 요소의 수나 관계는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불변의 요소들은 세가지로,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이며, 이 세 요소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의 원형을 구성한다. 물론 원형은 교육의 필요를 위해 단순화된 것이었을 뿐,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모형들은 도표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담화의 준거틀, 미디어의 성격,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상호작용, 피드백의 과정, 잡음등의 중요한 보충적 개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보충적 개념들은 모형을 보다 세련화하고 그 모형에 보다 큰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성의 극복을 통해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요인들은 보조적 위치에 두고 송신자—수신자의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들을 근원과 목적지(destination)로 부르던, encoder와 decoder로 부르던 어떤 방식으로 그 두 항을 연결하든지 간에, 그 축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과정으로 보아서, 도착점은 새로운 도착점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어도 두 항을 근간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로써 송신자의 인술행위와 수신자의 수신행위는 주체의 의식적 행위의 소산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송신자는 메시지의 의식적 주체이며, 수신자는 해독의 의식적 주체가 되는 셈이다. 송신의 축은 특정 개인이 아닐 수도 있고, 사회 전체, 한 계급, 한 집단, 한 제도, 기관, 협회, 씨클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메시지의 주체가 된다. De Fleur는 그의 모형의 설명을 통해 그점을 명백히 밝혀 준다.

“이 시스템의 일차적인 일반구성요소는 Source이다. Source의 기능은 메시지 내에서 의미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것은 바로 화자(話者)가 그의 청자에게 알리기 원하는 내적 반응(의미작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들(메시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작용의 메시지로의 전환은 그것을 표시적 상징의 형태로 외현화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경우에는, Source는 각 개인이 의미작용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내적 반응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지식의 작용을 통해 구성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Source는 조직된 집단으로서, 그 집단이 특정대변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집단적 의미작용이 형성화된다.”⁶⁾

De Fleur의 주장에 의하면, 송신자들은 그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개인이건, 집단이건, 사회이건간에) 부호화라는 구체적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창조자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메시지는 전적으로 그것을 작성하는 의도에 따라 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이 된다. 메시지는 의도가 구체화되고 외현화된 것이다. 물론 이야기된 것이 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의도와 이야기된 것 사이의 간극은 역기능적인 것으로, 규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로서 메시지의 이론적 위치는 순수한 도구성의 것으로, 사고의 운반자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모형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용자 주체가 대상의 실체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그의 계획에 의거해서 주체적으로 메시지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개념은 경험적으로 지각된 일정수준의 현실에는 일치한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송신자는 실상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메시지화하기 위해 이런 어휘 대신에 저런 어휘를 고르고, 이런 이미지 대신에 저런 이미지를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의 집착은,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율적 주체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의미작용과정이나 주체 구성문제의 분석에 장애요소가 될 뿐이다.

실상 송신자나 수신자를, 자율적이며 의식적 자아를 갖춘 주체로서가 아니라, Althusser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주체로 보고 인간의 경험 역시, 자율적으로 포착된 인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행위라면,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와, 주체에 의한 자율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위의 모형들은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을 위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송신자의 자율적 주체성이란, 바로 이데올로기의

6) Melvin De Fleur, *Op. Cit.*, p.91.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구성된 것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자유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로서의 느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송—수신자의 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모형들은, 역사성을 갖는 구성된 주체로서의 송신자—수신자를, 관념적인 주체로 대치함으로써 그 연구대상으로부터 역사를 제거하는 결과를 빚는 셈이 된다.

4. Lasswell의 기능이론

Lasswell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사회 내에서의 일반적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 첫째는, 환경감시 기능으로서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체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둘째는, 주변환경에 對한 반응을 위해 사회의 구성요소들 간에 협조적 관계를 맺어주는 것, 셋째는,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의 사회적 유산을 전파시켜주는 것등을 들고 있다.

이 기능들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이 어떤 역사적 순간에 행해지던 간에 차이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일반적 기능으로 제시된다. 라스웰은 또한 이 기능들이 인간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주장한다.⁷⁾ 이처럼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기능들은 실제, 엄밀한 의미의 사회학적 현실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Bourdieu의 지적처럼, Lasswell은 모든 역사에 공통되고,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요인에 의존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려 시도함으로써, 설명되어야 할 것을 설명으로 제시하는 결과가 될 염려가 있으며 역사적 특수성이나 문화적 독창성을 포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차이들을 분석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는 학문의 영역에서 유사성만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일반성을 평범성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⁸⁾ 이 견해에 의하면 라스웰은 일반화를 겨냥하다가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무의미한 평범한 기능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경험적인 방법으로,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만을 가려내려 시도함으로써, 그 현상들을 그가 고립시켜 놓은 기능들의 구체화된 사례로서 밖에는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비록 라스웰의 기능들은 사후적으로 가려내진 것이기는 해도, 앞서 이야기한 선험적 “육구”의 이론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특정 커뮤니케이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보편적 동질성의 원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역사공통적 인과의

7) Harold D. Lasswell “The Structure &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0, p. 130.

8) Pierre Bourdieu, *Le Métier de Sociologue*, Paris: Mouton, 1968, pp. 42-43.

원리란 과학적 지식을 가져다 주기보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사회학의 영역에서 인식론적 장애물의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원리를 원용할 때 각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들 속에서 추상적이고, 반복적인 논리의 발현만을 찾아 내는데 급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로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보는 인과론적 설명에서는 가정된 인간성에 그 현상의 의미를 귀착시킴으로써 특정 사회구성체의 특수성과 연결된 사실로서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며, 라스웰의 기능이론 역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속성으로서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행위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의 포착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이용과 충족의 이론과 현실도피적 기능

매스 미디어가 사회, 집단 혹은 개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와는 전도된 방식으로, 개인, 집단 혹은 사회는 매스 미디어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방식으로, 매스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용과 충족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한 분석을 통해 내세워진 가장 유명한 명제가 바로, 오락물들의 현실도피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오락의 문제는 대중매체의 보급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찌기부터 미국 사회학자들의 많은 주의를 끌어왔지만, 환상적 내용의 오락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런 종류의 문화물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의 효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오락은 힘든 직업적 일과를 끝낸 뒤의 정당한 휴식에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인가, 혹은 국민의식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인가? 대중오락물들의 지적, 심미적 차원의 빈약함을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밀도가 없는 내용이므로 건성으로 보아 넘겨도 되는 것인가? 오락물은 현실에 등을 돌리는 수단인가 혹은 오히려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 방법인가? 등등, 오락물에 의해 야기된 위와 같은 대논쟁은 주로 대중오락의 사회심리적 기능에 관련된 토론속에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토론속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명제가 위에서 밝혔듯이 오락물들의 현실도피적 기능이다.

사회과학자들은 현실도피의 개념에 비교적 확실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의 조작적(操作的) 성격울 보존하기 위해 그 개념에 비교적 명료한 대상을 부여하고자 했다.

Klapper는 그가 매스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 다룬 책에서 현실도피의 문제에 한 장(章)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 클래퍼는 다음과 같이 현실도피의 개념을 선명히 하고자 한다.

“사전은 “escapist”를 인생의 단조롭고 불유쾌함에, 현실에 위안을 제공하거나, 혹은 제 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물론 오락물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효과에 의거한 설명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문화산물은 잠재적으로는 최소한 일부 공중에게 있어서 현실도피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심각한 고전음악은 물리학자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구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량의 축조에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은 가게점원들의 단조롭고 불유쾌한(déplaisants) 현실에 대해 현실도피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수학 이론은 의사나, 산업가들에게 같은 현실도피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종류의 현실도피는 사회과학자들의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종류의 가능한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특히 현실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나 인생의 이미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가진 것들이 생산하는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⁹⁾

Klapper의 지적처럼, 항상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현실도피를 허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사회과학자들이 우르스럽게 escapism의 개념을 통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기반적이고, 허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특정타입의 오락물들이다.

오락물과 내용보다 이런 오락물들중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라디오나 드라마의 연속극으로 이런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번에 걸쳐 현실과의 합치정도를 밝혀내기 위한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1944년부터 Rudolf Arnheim은 “The World of the Daytime Serial”¹⁰⁾이라는 글에서 43편의 라디오 드라마를 분석하여, 드라마의 줄거리가 전개되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주인공들의 직업적 지위, 빈도가 잦은 테마, 그 테마에 덧붙여진 도덕적 함축의미 등을 가려내고, 실제현실과 라디오가 보여주는 현실의 재현(representation)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간극을 지적했다. 몇년뒤, 시드니 헤드(Sidney Head)¹¹⁾, D. Smythe¹²⁾와 Melvin de Fleur¹³⁾는 Arnheim이 라디오 드라마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재확인했다. 즉, 매스 미디어는 대중에게 흥미롭게 재구성된 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직업적 안배는 현실과 반대이며, 육체노동은 평가절하 되어있고 파시즘적 내용이 계속 등장하며,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현실감각 상실의 꾸준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결과들은, 오락물의 현실도피적 기능의 주창자들에게, 현실도피를 야기하는 자료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셈이다. 위의 오락물들은 바로, 수용자로 하여금 현실의 정확한 지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치 먼이 고르지 못한 거울처럼, 위의 오락물들

9) Klapper (J.T.),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N.Y.: The Free Press, 1960, “The effects of escapist media material” 참조 pp.166-205.

10) R.Arnheim “The World of the Daytime Serial,” in P. Lazarsfeld & F. Stanton, 1942. Sloan & Pearce, pp.507-548.

11) Sidney Head: “Content Analysis of T.V. Drama Programs” in *Quarterly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K, 1954, pp.175-194.

12) Dallas Smythe, “Reality as presented by television”, P.O.Q. 18, 1954.

13) Melvin de Fleur, “Occupational Roles as Portrayed on Television”, P.O.Q. 28, 1964.

이 주는 현실의 이미지는 실제 모델을 변형시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도피적 오락물의 효과

현실과 깊은 간극을 보이는 현실이미지를 담은 오락물들이, 그것에 노출된 수용자들에게 일으키는 효과에 대한 해답은 대략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노출된 사람들의 공민적 활력을 감소시키고, 무감각(Apathy)의 경향을 강화시키리라는 것으로 Merton과 Lazarsfeld에 의해, 매스 미디어의 최면적 역기능으로(narcotic dysfunction) 명명되었다.¹⁴⁾

둘째는, 사회적 무감각 조장의 효과를 부인하고, 오히려 사회통합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이다. Elihu Katz와 David Foulkes는 “현실도피 수단으로서의 매스 미디어의 사용에 대하여”¹⁵⁾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실도피적 내용의 존재와, 현실도피적 효과 사이에 필연적인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용분석된 오락물들이 현실의 재현에 있어 상당한 왜곡현상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왜곡이 그것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생산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픽션의 인물들에 동일화하는 현상을 끈, 현실도피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작용의 기능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동일시가 가져다줄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의 학습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Katz와 Foulkes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매스 미디어와 어린이들의 역할 학습에 대한 Riley 부부의 연구¹⁶⁾와 Leo Bogard의 만화에 관련된 연구¹⁷⁾를 예로 든다. 어린이들의 경우 놀이 상황에서 역할을 즉흥적으로 수행해 내는데, 비현실적인 픽션 오락물들이 도움을 주며, Bogard의 연구에서는 만화의 인물들이 노동자 그룹에게 인간의 개성을 분류하는 타입으로 흔히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Katz와 Foulkes는 현실도피적인 것으로 정의된 내용은, 실제에 있어서 현실도피와 상관없이 수용자 개인의 사회내 통합과정을 돕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립된 입장은, 동일한 문제틀내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뿐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이나 개념체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추리의 결론이 다를 뿐 오락물의 내용이 현실도피적인 것이라는 전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14) Paul Lazarsfeld & R. Merton, “Mass Communication, Popular Taste & Organized Social Action”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 pp. 492-512.

15) Elihu Katz & David Foulkes, “Sur l'utilisation des mass media comme nuoyens d'évasion” in F. Balle, ed., *Sociologie de l'information*, Paris: Larousse, 1973, pp. 305-317.

16) Mathilda Riley, “A Sociological Approach to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P.O.O. 15, 1951, pp. 444-450.

17) Leo Bogard, “Adult Talks about Newspaper Comics,” A.J.S. Vol. 61, 1955, pp. 26-30.

현실도피의 요구

현실도피적 내용이 사회적 무감각이라는 부정적 효과나, 개인의 사회내 통합과정을 돕는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거나 간에, 전제와 결과간의 상호관련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왜 수용자는 현실과 유사성이 적은 드라마같은 방송내용을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Riley 부부의 조사나, Katz와 Lazarsfeld,¹⁸⁾ Hazard¹⁹⁾의 조사에서 모두 도피적 픽션물체의 노출정도는 수용자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고립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Katz와 Lazarsfeld에 의하면,

“미디어의 사용에 관한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인구의 계층분화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혹은 사회적 속성이다. 현실도피성에 관한 이론가들은 소외라는 사회심리적 속성을 선택했다. 소외는 무기력과 무의미의 감정이나 혹은 이념적, 사회적 고립의 감정을 의미할 수 있다(……). 소외는 현실도피의 욕구를 생산하며, 매스 미디어는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²⁰⁾

이처럼 Katz와 Lazarsfeld의 주장에 의하면 비현실적 오락물체의 노출은 수용자 자신이 경험하는 결핍과 욕구가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며, 이것에 매스 미디어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매스 미디어의 기능이나, 미디어의 생산물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수용자 개인의 차원에서 찾으려 시도할 뿐, 사회구성체와의 어떠한 관련성도 암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현실도피이론은 수용자에게 거의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한다. 현실도피적 내용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개인에게서이며, 그러한 효과를 생산하는 오락물을 야기시키는 것도, 개인이 느끼는 결핍과 욕구이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주체의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간주됨으로써, 수용자 주체는 한 과정의 원인이며 동시에 그 대상이 된다.

한편, Denis McQuail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현대사회와 매스 미디어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로운 접근 방법은, 현대사회 대부분의 구조적 성격때문에 광범한 다수에게 높은 물질적 보상이 결핍되고, 경제적 활동의 동기가 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족의 대체물은 오락적 세계의 인물에, 혹은

18) E. Katz & P.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The Free Press, 1955.

19) W.R. Hazard, “Anxiety and Preference for Television Fantasy” J.Q. 44, 1967.

20) Katz & Foulkes, *Op. Cit.*, p. 308.

스타에 동일화하거나, 그들의 성공한 생애의 허위적 참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²¹⁾

얼핏 보기에 McQuail은 현실도피적 성향의 문제를 심리학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영역위에 위치시키는 것같이 보인다. 미디어의 존재이유를 사회적 조직속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결핍이나 욕구에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사회구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Jean Cazeneuve 역시 현실도피성향에 대해 McQuail과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현실도피 욕구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McQuail이 그 욕구를 혜택받지 못한 사회적 계층의 속성으로 보고 그 원인을 사회적 부(富)의 불공평한 분배로 야기되는 좌절을 들고 있으며, Cazeneuve는 혜택받은 사회적 계층 역시 이유는 다르나 같은 욕구를 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혜택받은 계층은 그 나름대로, 인위적 환경, 도시생활의 압박함, 새로운 책임의 증가등의 이유로 도피적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McQuail, Cazeneuve의 분석 역시 그 이전 사람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미디어의 존재를 수용자 주체로부터 유래되는 결핍을 메꾸어주는 것으로 귀착시킨다. 그 주체가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집단화하였을 뿐이다. 개인적 주체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주체가 소외나 혹은 비인간적 삶의 조건등으로 좌절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좌절감은 현실도피의 욕구를 야기하고, 그 욕구는 특정내용의 오락물 속에서 충족된다는 것이다.

McQuail은 문제의 현실도피 욕구를 사회적 전체의 불균형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으나, 그의 사회구성체의 개념은 계급적 대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분배의 불공평이라는 문제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욕구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 구조일 뿐, 매스 미디어의 성격, 결핍을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 데는 그 이전의 설명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회구성체 내의 한 층위로서 매스 미디어를 위치시키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매스 미디어는 사회구성체의 밖에 주어지고, 사람, 집단, 사회에 독특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매스 미디어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구성체 내의 한 층위로서, 미디어는 사회적 모순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효과는 현재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사회구성체내의 한 층위로서 보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결과는 매스 미디어라는 대상이 갖는 사회적 혹은 역사적 특수성을 증발시켜 버리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Katz와 Foulkes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매스 미디어와, 수면의 기능적 동일시이다. 두 저자는 현실

21) D. McQuail, *Towards a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s*, London: McMillan, 1972, p. 77.

22) Jean Cazeneuve, *La Société de l'Ubiquité*, Paris: Denoël, 1972, p. 59.

도피의 욕구는 한 사회내에서, 매스 미디어 외에도 알콜, 마약, 강신술, 수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이들 중에서 특히 수면은 가장 철저한 현실도피의 방법으로 지적된다. 이로써 수면은 바로 매스 미디어와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된다. 매스 미디어의 사회적 특수성을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용해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용과 충족의 이론은 현실도피의 과정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사회에 대한 효과로서, 현실감각상실, 무감각의 조장을 들었다. 이점은 대중문화의 발달에 불안감을 느끼는 지식인들, 언론인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의 정치적 무감각의 증대에 대한 근심은 일견 상당히 급진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감각에 대한 염려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Wright Mills가 「사회학적 상상력」속에서,²⁴⁾ 미국의 사회학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했던 자유주의의 교리(doctrine libérale)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무감각이 근심스러운 것이라면, 이것은 도달해야 할 이상을 전제로 한다. 이 이상은 분명 무감각의 반대로 정치적 참여가 될 것이다. “Mass Communication, Popular Taste and Organized Social Action”²⁵⁾이라는 글에서 Merton과 Lazarsfeld는 명백히 이 참여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은 무감각을 지칭할 때 최면적 역기능이라 명명했지 최면적 기능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 많은 대중이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찾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 결국, 정치적 무감각의 진단은, 참여와 대화를 사회적 균형의 원천으로 보는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의 바탕으로부터 가능해진다. “정치적 무감각”의 주창자들이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흑인 노동자의 무감각과, 모두 소유하고 있는 백인주인의 무감각을 단지 그들이 같은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해서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버릴 수 있는 것도, 계급적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혹은 입장에서서는 성립될 수 없는, 과학적 이론이기보다 하나의 이념적 담화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특정 사회구조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해석을 보편타당성을 갖는 이론화해버리는 것은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역사성을 제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6. 결 론

이제까지 살펴본 이론들은 주체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강한 믿음 위에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Lasswell의 유명한 누가, 무엇을, 어떤 매체를 통하여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라는 도식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송신자가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

23) Katz & Foulkes, *Op. Cit.*, p. 316.

24) C.W. Mills, *L'imagination Sociologique*, Paris: Maspero, 1968.

25) Lazarsfeld & Merton, *Op. Cit.*, p. 501.

로 행하는 계획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능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송신자는 독립되고 자율성을 누리는 '주체'로서 의도에 따라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되어 있다.

보다 정교화된 다른 커뮤니케이션 모형들 역시 송신자와 수신자를 축으로 해서, 메시지를 송신자의 의도가 구체화된, 송신자 주체의 의도에 따라 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텍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이 밝혀낸, 매스 미디어 내용의 현실도피적 성향은 수용자-주체의 욕구, 필요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소개된다.

결국,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자율성을 지닌 '주체'들의 의도와, 계획과 욕구에 따라 통제 가능한 것이므로,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진보와 완성이 가능한 현상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은 궁극적으로는 의도된 효과의 창출, 잠음없고, 충만되고, 공유되며 소외없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을 위한 처방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 받는다. 즉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 위에 무한정한 가능성의 희망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조주의 특히 후기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체' 개념의 무비판적인 수용위에 이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극-반응의 모델이건(매스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무엇을 하는가?) 혹은 이용과 충족의 관점에서이건(수용자는 매스 미디어로 무엇을 하는가?) 혹은 기능주의적 접근이건(어떤 필요, 기능에 매스 미디어가 부응하는가?) 그 어느 경우에도, 구조주의의 용어를 빌리자면, '주체'의 관점에서의 진술(enoncé)만이 있다. 송신자 수신자 항의 위치가 바뀌는 변화가 있을뿐, Althusser가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설명하며 지적했던 「주체에 의한, 주체를 위한」 인간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위에 기존의 정통이론은 세워져 있는 셈이다.

구조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이 갖는 탈역사화 작용은 근본적으로, 「주체」의 문제에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역사성을 지닌 「주체」가 독립되고 자율적인 보편성의 존재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이론이 메시지를 수단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즉, 자율적 주체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제 가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 탈역사화의 또 다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는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 담화로서 파악되며, 담화는 수단적 차원이 아닌 계급투쟁의 장소이며 목적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가 계급투쟁의 장소이며 목적이 되는 이유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차이체제로서의 언어의 성격과 언어적 기호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잠재력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Fiske에 의하면 언어적 기호들은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고 단지 의미의 잠재력만 가지고 있으며, 기호의 사용에서 현시화된다. 기호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의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담화내에서는 특정방향의 의미로 유도되어 사용된다. 담화속에서는 결국 대상의 특정한 의미가 다른 가능한 의미들을 제치고 강조되도록 다른 잠재적 의미를 봉쇄하는 일관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언술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내에 통용되는 지배적 강조법(dominant accentuation)이 혁명적 변화나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담화의 구성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⁶⁾

언어가 세계를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차이체계이며, 담화는 바로 언어적 기호들의 의미고정을 위한 장소라 할 때 기존의 정통이론에서 메시지라고 부르는 담화는 명실공히 계급투쟁의 장이며 목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시지의 수단적 개념은 기존이론이 보여주는 탈역사화의 다른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이론의 역사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은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거기에는 사회의 문제들을 주어진 구조내에서 해소가능한 대립의 관계로 보느냐, 혹은 구조적 변혁이 불가피한 모순의 관계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이론의 문제들 속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념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26) J. Fiske, *Understanding News*, Methuen, 1980, p. 20.